



수입 벌꿀 대응 '우리 벌꿀' 신뢰도 높일 방안 찾는다

- 농촌진흥청, 27일 인천서 '벌꿀 소비 진작 학술토론회' 열어
 - 원산지 판별·유통 이력 관리 강화 논의
 - 국가 벌꿀 관리 체계 고도화 기반 마련 기대
- ※ 일시 및 장소: 2026. 8. 27.(목) 15:00, 인천대학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27일 인천대학교에서 베트남산 벌꿀 수입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해 국산 벌꿀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관리를 강화하고자 '벌꿀 소비 진작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이 공동 주관·주최했으며, 한국양봉학회 하계학술대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이날 관련 부처를 비롯해 산업체, 양봉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 5건에 이어 지정 토론이 있었다.

주제 발표는 △건강한 양봉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벌꿀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현황 △벌꿀 식품 기준 규격 및 공인시험법 △수입 벌꿀 원산지 인증제 및 유통이력제 도입 △벌꿀 생산이력제 추진을 위한 이동양봉정보 시스템 도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산 벌꿀에 원산지와 생산 과정을 증명하는 이력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

주제 발표 후 한국양봉학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 청년 농업인, 산업체가 참여해 수입 벌꿀 개방을 앞두고 국산 벌꿀의 신뢰도 제고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토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국제식품규격(CODEX)에 맞춘 벌꿀 용어 개선을 비롯해 소비자 신뢰 확보 방안 등 국산 벌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농촌진흥청 양봉과 한상미 과장은 “벌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수입 벌꿀과의 차별화로 국산 벌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원산지 관리제도 개선과 판별 기술 개발로 국가 차원의 벌꿀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양봉농가를 보호해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벌꿀 소비 진작 학술토론회 개최

담당 부서	국립농업과학원 양봉과	책임자	과 장	한상미 (063-238-2841)
		담당자	연구관	이경용 (063-238-2845)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 개 요

- (주제) 베트남산 벌꿀 수입 대응 국산 벌꿀 신뢰도 제고 및 유통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일시·장소) '26. 8. 27.(목), 15:00 ~ 18:00, 인천대학교
- (주관·주최) 농과원·한국양봉협회·한국양봉농협
- (참석자) 농과원 성제훈 원장, 양봉협회 박근호 회장, 양봉농협 김용래 조합장 및 정부부처, 산업체, 양봉농가 등 100여명

□ 주요 내용

○ 주제발표(5건)

- ① 건강한 양봉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박연진 대표,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 ② 벌꿀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현황(우순옥 연구관, 농과원)
- ③ 벌꿀 식품 기준규격 및 공인 시험법(백옥진 연구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④ 수입 벌꿀 원산지 인증제 및 유통이력제 도입(정기철 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⑤ 벌꿀 생산이력제 추진을 위한 이동양봉정보시스템 도입(이경용 연구관 농과원)

○ 지정토론(5명) : 양봉학회, 양봉협회, 양봉농협, 청년농, 산업체

시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4:50~15:00	10	▪ 개회식 -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기념촬영	▪ (사회)김명현 연구관
15:00~17:00	120	▪ 주제발표	
17:00~17:40	40	▪ 지정토론	▪ (좌장) 한상미 과장
17:40~18:20	40	▪ 질의 응답 및 마무리	

□ 기대효과

- 벌꿀 원산지 관리제도 개선과 판별기술 개발 방향을 공유하여 국가 차원의 벌꿀 관리체계 고도화 기반 마련
- 국산 벌꿀의 소비 확대와 양봉농가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연구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양봉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